

춧불, 올해 출판계도 뜨겁게 달궜다

키워드로 보는 2017 출판계

자기표현·여협사회와 김지영

4차산업·인공지능·문고본 열풍

‘자기표현’, ‘춧불과 출판’, ‘4차산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반격, ‘리커버와 문고본’, ‘웹소설과 플랫폼 비즈니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협사회와 김지영’...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2017 출판계 키워드 35에서 선정한 올해 출판계 키워드다.

‘자기표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춧불혁명’이라는 무혈혁명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인간적 자존감을 추구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 ‘82년생 김지영’, ‘서른의 반격’, ‘현남 오빠에게’ 등 억압되었던 여성, 성소수자,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한다.

두 번째 키워드 ‘춧불과 출판’은 구제제를 파산시킨 자율혁명과 연관돼 있다.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논하는 일은 중차대한 책무가 되었다. ‘대통령의 글쓰기’, ‘국가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헌법’ 등의 구간 또는 개정판으로 다른 세상을 희구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키워드 3위는 ‘4차산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의 반격’이 선정됐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책과 아울러 자연적인 인간의 뇌와 지능에 관한 책들도 조명을 받았다. ‘지능의 탄생’, ‘포스트 휴먼이 온다’, ‘인간을 다시 묻다’ 등의 책은 4차산업혁명과 아울러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4위는 ‘리커버와 문고본’이 차지했다. 서점 통계에 따르면 출간 직후 석 달 판매량이 그 후 21개월 판매량보다 더 많다고 한다. ‘과학혁명의 구조’는 출간 50주년을 기념해 표지를 바꿔 재출간됐다. 리커버와 문고본 재출간은 구간(舊刊)을 다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키워드 5위로 뽑힌 ‘웹소설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른 시점부터 대중화되었던 웹소설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다. 웹소설 양대 플랫폼 ‘조아라’와 ‘문피아’는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2010년대에는

키카오페이지나 네이버웹소설 등 포털 사이트까지 참가해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시도도 가능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6위) 파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에서 ‘소년이 온다’ 등 최소 22종의 도서와 ‘인디고양’ 등 9개 잡지가 지원 배제됐다.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범죄로 인식되면서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폐지 및 축소되었던 사업이 복원되고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가 조남주는 그 말년 김지영 씨들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물음을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던졌다. ‘여협사회와 김지영’이 7위에 선정됐다.

이밖에 ‘송인서적 부도’, ‘마중물 독서’, ‘1인 출판사의 가능성’, ‘아날로그 반격’, ‘가즈오 이시구로’ 등도 키워드에 뽑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으로 송구영신

13일 김상봉·박구용 교수·헤민 스님 강연 잇따라

올해 마지막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GB토크로 박구용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의 ‘미학의 즐거움과 예술’ 강연이 마련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3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 4차 GB토크를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 박구용 교수는 ‘미학의 즐거움과 예술’을 주제로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중요성과 함께 예술을 통해 다양성이 증폭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자유대학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등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우리 안의 타자’, ‘도구적 이성 비판’, ‘부정의 역사철학’ 등을 펴냈다.

사회는 이태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가 맡았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 문의 062-608-4233.

인문지행과 책방 심가네 박씨가 ‘김상봉 교수의 대화’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오후 7시~9시 책방 심가네박씨(동구 동명로 67번길 22-2)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책 ‘내가 나 라다’(2017)를 통해서 세월호 이후 세대에 던지는 ‘우리는 누구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김상봉 교수, 헤민 스님, 박구용 교수

참가비는 5000원으로 뱅소와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 방문 또는 이메일(pacdamm@hanmail.net) 신청(성명·연락처를 필히 기재). 문의 062-229-0687.

헤민 스님도 전남을 찾는다. 헤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가 13일 오후 4시30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KDN 1층 빛가람홀에서 열린다. 전남도혁신도시 지원단이 주최하고 BBS 광주불교교방승이 주관하는 행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수행과 힐링 명상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미국 하버드대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 종교학 박사인 헤민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2016) 등 베스트셀러를 펴냈으며 현재 마음치유학교 교장, 미국 뉴욕 불광선원 부주지를 맡고 있다. 문의 062-520-1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하나되는 한국-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공연단 '사즈켄 사지'

‘태백산맥’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

필사본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 성료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태백산맥”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 및 제4차 ‘태백산맥’ 필사본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이 지난 9일 조정래 작가와 보성군 관계자, 각지에서 모인 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고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 이번 독서감상문대회는 일반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온·오프라인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대상 박중근(부산 기장군), 나지석(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최우수상 노은주(경남 남해군), 양승현(전북대 국어교육학과), 우수상 최은주(경기 용인시), 장재민(한국해양대) 씨가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또한 올해 네 번째를 맞은 “태백산맥” 필사본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인톤기(44·경기 수원시), 이주연(여·41·경기 오산시), 임태운(37·광주 동구) 씨가 보성군과 조정래 작가, 해냄출판사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로써 태백산맥문학관에 전시 중인 독자 필사본은 모두 30세트가 됐다.

기념행사에는 조정래 작가와 행사 주최인 윤병선 보성군수대행, 박철화 평론가, 강유정 평론가, 도서를 발행 중인 송영석(주)해냄출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아르크공연센터 25일까지 대관신청 접수

소촌아트팩토리 ‘아르크공연연습센터@광주’(이하 아르크공연연습센터)가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정기대관 신청 기준 월은 내년 1월부터 6월 까지며 오는 25일까지 아르크공연연습센터 온라인 통합 대관시스템(http://bang.arko.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관은 화요일~일요일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대연습실(332㎡), 중연습실, 리딩룸, 세미나실이 대관 대상으로 대관료는 전일

(10시~22시), 오전(10시~13시), 오후(14시~17시), 저녁(18시~22시)으로 구분해 받는다. 대연습실과 중연습실은 전일 각각 4만원과 2만원이다.

시간별 대관료는 오전과 오후 3시간 기준 대연습실과 중연습실이 각각 2만원과 1만원이다. 저녁 대관 기준시는 4시간이다. 리딩룸 대관은 무료이며 세미나실은 내년 3월부터 대관한다. 문의 062-960-368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13일 문화전당서 수교 25주년 공연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 ‘한-중앙아 민속음악 이야기’가 오는 13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과 아시아문화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주한키르기스 공화국대사관, 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공동 주관한다.

카자흐스탄 공연단 ‘사즈켄 사지’는 카자흐 전통

현악기인 ‘돌브라’와 아코디언, 드럼 연주를 통해 민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타지키스탄 공연단은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샤쉬마콤’과 페르시아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용을 선보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수 ‘아슬란 아타노프’가 중심이 되어 전통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공연단 ‘라즈기’는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지역인 ‘호레즘’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가무악단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과 민속춤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 날 공연에는 ‘피아노 듀오 에스’도 출연해 한국음악을 선보인다. 문의 062-601-4049, /전은재기자 ej6621@

광주시민인문학 12월 강좌 다채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올해 마지막 강좌를 개설한다. 31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발’에서 개최되는 50기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을 만난다.

정규강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오후 7시 30분)진행되는데, 월요일에는 모라토리움인 문학 앵콜 강좌시간으로 안정선 선생님이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가족-실습 체험 중심’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김청우 박사의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와 명혜영 교수의 ‘몸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 강독’이 진행된다. 목요일에는 노(老)교수의 철학노트 시간으로 위상복 교수가 ‘말스와 자본’을 강의한다.

SEMI강좌(월·목·토 오후 2시)를 통해서도 강좌가 이어진다. 월요일 안철 음악해설가의 ‘일상에 클래식 선율을 : 쇼팽음악’, 목요일 ‘무라카미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정독’, 토요일 ‘한국 고전 영화 특별전’이 예정돼 있다. 토요일(오전 11시) 특별강좌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의 ‘일본 원서로 읽는 인문학’이 진행된다.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